

수상

어머님과 누에고치

Mother and Cocoon



글 | 洪鍾震

(Hong, Chong Jin)

농어업토목기술사,
한국농촌개발연구소 이사, 수필가.
E-mail : hong37@empal.com

내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이니 반세기가 훨씬 넘은 이야기다.

6.25 동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을 비롯한 외국 군인의 진지가 각 지방마다 많이 있었다. 당시에 부대 이동은 전황에 따라 부대가 이동을 했는데 부대가 떠나면서 흘리고 간 강력살충제(지금의 F-Killer와 비슷한 살충제였음)를 한 통 얻었다. 살충제는 그 당시엔 미군들이 천막을 치고 병영생활 할 때 벌레에 물리지 않게 보급품에 지급되었다. 집안에서는 좋은 약을 얻어 왔다고 모두들 좋아하고 동네사람에게 자랑도 하고 그랬다.

살충제통의 모양은 쇠통이었는데 마치 캔맥주 크기로 양쪽이 둥글게 되어 있었다. 약통에 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장치 하나가 옆에 붙어있었다. 손가락으로 꼭 누르면 꺾하면서 흰색 가스가 나오는 살충제다.

시골에선 밤이면 쑥 태우는 연기로 모기를 쫓기도 하고, 빈대를 잡으며 곤충들과의 전쟁을 할 때이다. 그런데 집에 와서 그 약을 방에 뿌리니 아주 신기하게 빈대가 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었다.

우리 동네에선 초여름이면 누에를 열심히 쳐서 고치를 팔면 그 돈이 학비로도 충당하고 집안 살림살이에 보태 쓰고 공과금도 내는 등 커다란 경제적 재원의 하나였다.

우리 집에서든 매년 여름 한철 누에치는 것이 농사짓는 것이나 같았고, 어머님과 큰누님은 눈코 뜰 사이도 없이 바쁘게 여름철을 보내야만 했다.

누에가 첫 잠을 자고, 두 잠 자고, 석 잠을 자고 나면 그 후부터는 뽕을 따다가 마루에 펴 놓고 수시로 누에가 뽕을 다 먹었나를 살피면서 다 먹었으면 또 주워야 한다. 누에는 평생 네 번의 잠을 자는데 자고 나면 꺼풀을 벗고 커진다. 녀 잠을 자고나면 누에가 손가락 크기만 한데 그 때 뽕 먹는 소리가 씹하면서 빗소리 같이 들린다.

그런데 우리 집은 할아버지의 덕분에 뽕 걱정은 안하고 누에를 쳤다. 할아버지께서는 조선 고종황제 시절에 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관직에 계시다가 한일합병 후 팔현리로 낙향하여 생활하시면서 농부 아닌 농부가 되셨다.

할아버지의 소일거리는 채마밭을 가꾸는 일이 유일한 취미였고, 일찍이 유실수를 심어 소득을 올려 가정경제를 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 집 밭엔 당귀, 황기, 담배, 천궁, 양귀비, 석류 등 일년생 초식 식물들이 그득했고, 밭 귀퉁이에는 호두나무, 밤나무, 매화, 살구, 산사, 뽕나무 등 유실수가 펍 많았다. 그 중에서 뽕나무 밭을 넓게 잘 만들어 가꿔 놓아, 여자들이 서서 손으로 뽕을 딸 수 있는 크기로 매년 전지를 해 놓으셨다.

뽕잎은 널찍널찍하고 표면에 윤기가 나 누에가 먹고 잘 자라기엔 영양이 풍부한 먹이었다. 동네 누에치는 집에서는 어머님께 뽕 남느냐고 종종 묻는다. 남는 뽕을 얻으면 산으

로 뽕을 따러 힘들여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어머님께서는 뽕이 남는 듯하면 미리 어느 곳에 있는 뽕나무에 뽕을 따다가 먹이라고 말씀도 하신다. 이렇게 뽕에 관해서는 뽕 부잣집으로 통했고 동네에서 인심이 좋은 집으로 소문이 났다.

당시에는 양잠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던 때라서 종잠(種蠶)은 정부에서 외상으로 공급을 하고 누에고치 팔면 종잠 값을 내면 되었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못살고 험벗은 농촌경제를 부흥시켜 보자는 정책 차원에서 농한기의 유휴 노동력을 알뜰하게 활용해 보자는 뜻이었다. 종잠은 뽕나무도 있고 누에 칠 수 있는 집에다가 배분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뽕이 많은 집이라고 매번 한 장 반 정도의 배분을 받는다. 배당을 받고나면 그 때부터 여름 내 어머님과 큰누님은 열심히 뽕을 따다 누에를 기른다.

이렇게 기른 누에는 녀 잠을 자고나 몇 날이 지나면 누에가 하얗게 머리가 투명해지는데 이것이 누에가 늙은 것이다. 그러면 늙은 것만 골라서 누에솥에 올린다.

그리고 나면 열심히 키워줬다고 주인에게 보답이라도 하는 듯 하얀 고치가 주렁주렁 달린다. 누에고치는 누에를 솥에 올린지 대략 15일 후가 되면 따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웬일인가? 그렇게 씩씩하게 자란 누에고치를 올린 것이 거의 다 썩

어 깨끗한 고치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것이다. 조금 성하다고 하는 고치도 누에고치 속에서 썩은 물이 배어나와 반듯한 고치는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되니 어머님과 누님은 얼마나 가슴이 쓰리고 얼마나 낙망 하셨겠는가! 이러니 모든 계획은 다 틀려지고 실망만 남는 것이다. 어머님은 시골에 5일장엘 가시면 약속 한 병과 고등어 한 손은 늘 사다가 할아버지께 잡수시도록 하시던 분이였다. 이렇게 효부라고 소문난 어머님은 고치 팔아서 하려했던 야무진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렸으니 말이다.

이웃사람들은 고치 풍년이 들어서 공판 날만 기다리며 1등급, 2등급을 미리 골라놓고 금년에는 수익금이 얼마가 되겠네 하면서 야단들이다. 우리 동네는 공판 날이 되면 남자들은 지계에 짊어지고 아낙네는 머리에 이고 장현이나 금곡으로 팔러 간다. 공판 기간은 동네별로 고치 파는 날이 정해져 있었다.

우리는 팔 것이라곤 불과 얼마 되지 않으니 여름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허무하기 이룰데 없는 것이다. 이러기를 3년이나 계속되니 누에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 당시엔 춘잠과 추잠으로 나눠서 누에를 쳤는데 이번에는 잘되겠지 하고 치면 다시 그런 현상이 오곤 했다. 그러니 동네에는 누구 죽은 송장을 봐서 그러니 또 어째서 그러니 하고 미신 같은 헛소문이 자자하게 돌기도 하였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아내야겠다는 일념으로 전 가족이 그 원인 찾기에 급급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으나 나중에야 그 원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께서 “아마도 종진이가 얻어온 살충제가 문제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살충제 때문인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갖가지 약으로도 안 없어지던 빈대가 전멸 한 것을 보니 살충제가 주원인 것이 분명했다. 그 독성이 말할 수 없이 강한 약물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고 보니 내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그런 줄도 모르고 두 분께 그동안 헛고생만 시켜 드린 결과가 됐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곱고 착하신 그 마음씨는 고향마을에 포근한 봄날 햇볕 같이 느껴진다. 그 넉넉하심은 이 세상에 어느 무엇 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셨다. 살충제로 인해 어머님과 큰누님이 여름내 땀 흘리시며 헛고생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은 지금도 가슴이 메어지도록 아프기만 하다.

누에나 우주의 생명체는 혈기가 왕성할 때는 성장하는데 만족할만한 생활환경이 안 되더라도 참고 견디며 살 수 있으나 세월이 가고 늙으면 모든 병마에 약해지고 나쁘면 생활후유증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과 비슷하다는 것을 누에 생(生)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다.

(원고접수일 2009년 6월 9일)